

중형항공기 제3협력선 선정 임박

런던의 옴서버지는 8월 6일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와 다임러 벤츠,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네덜란드업체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보잉사를 제치고 이 프로젝트의 중국측 제휴선으로 최종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옴서버지는 BAe사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 이번 프로젝트 확보 경쟁에서 유럽업체들이 단결, 보잉사를 제쳐야 “유럽항공산업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의 존 F 맥도널 회장은 8월 1일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1백인승급 중형항공기인 MD-95의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널 회장은 박장관에게 “한국과 중국이 공동 추진중인 중형항공기 프로젝트에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전달하고 조만간 기술이전 조건 등을 포함한 참여제안서를 한·중 양국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보잉사의 리처드 제임스 부사장은 우리나라를 방문, 11일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제3 합작선에 보잉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사는 제임스 부사장을 통해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를 보내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날 제임스 부사장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항공기업계 20년내 인력 50만명 상실 경고

미항공기제작업계는 외국의 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취해지는 “상쇄조치” 때문에 앞으로 20년내에 약 50만명의 인력을 해외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8월 2일에 공개된 한 보고서가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항공기제작업체들이 매출고에서도 2013년 까지는 외국회사들에게 1천2백90억달러나 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3년까지 약50만명의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서 미국회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

는 대가로 그들의 항공기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토록 하는데 동의하는 “상쇄정책”과 외국의 경쟁을 들었다.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의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 및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인력 및 기술의 수출을 항공기 판매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민항정책을 협상하라고 권의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금융, 수출 및 무역면의 연방정책을 조정하여 항공우주산업이 장기간에 걸쳐 존속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항공기 공정거래협정의 체결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日, 차세대 소형여객기 개발연기

일본정부는 당초 96년에 착수하려 했던 차세대 소형여객기(YSX)의 공동개발계획을 97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월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급격한 엔강세로 수출채산성이 확실치 않게 된데다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보잉사

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내년도 예산에서 YSX개발비를 계상하지 않고 조사비만 요구키로 했다.

통산성과 일본 국내 항공기업체는 89년 YS-11형기의 후속기로 국산여객기를 개발하는 YSX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그동안 미쓰비시(三菱)중공업·가와사키(川崎)중공업, 후지(富士)중공업 등과 美보잉사가 참여해 항공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시장을 겨냥해왔다.

인도네시아, N-250 처녀비행 성공

인도네시아 최초로 자체 제작된 N-250 터보 프로프 항공기가 8월 10일 처녀비행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설적인 폭두각시 영웅의 이름을 따서 '가토 트코코'라 명명된 이모델 비행기는 이날 반동의 후세인 사스트라 나가라 공항에서 수하르트 대통령 등 내외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0시(현지시간) 이륙해 약 1시간동안 비행한 후 안전하게 착륙했다.

하비비 장관은 이번에 개발된 70석 규모에 조금 못미치는 이 중형 여객기가 오는 98년까지는 상업적 생산을 해 대당 1천3백50

만달러에 팔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2003년을 목표로 1백인승 제트기를 개발할 계획 이라고 수하르트 대통령이 10일 밝혔다.

수하르트 대통령은 국영 IPTN 항공기제작사가 N-2130으로 명명된 제트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행기 개발에 필요한 2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이 계획추진의 최대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N-250-100기 개발에 6억5천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이의 상업생산에는 1억8천5백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수하르트대통령은 빈곤 및 문맹퇴치등 더 시급한 계획이 많아 새 비행기의 개발자금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IPTN의 주식 2백만주를 주당 1천달러 정도로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항공우주산업 세계5위 산업연구원 전망

오는 2020년에는 항공·우주, 환

경설비, 일반기계 및 전자 산업 등의 생산규모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커져 향후 국내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8월 13일 내놓은 「한국의 산업: 역사와 비전」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우주 부문의 국내 생산규모는 오는 2020년 지난해보다 29.8배 커져 세계 15위에서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첫 비행기 98년부터 생산

필리핀정부는 필리핀 최초의 국산비행기가 될 다목적비행기를 개발, 9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7월 24일 밝혔다.

필리핀 교통부는 3백50마력급 터보엔진을 장착한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미 시작됐으며 98년까지 20대의 시제품을 제작한 뒤 2000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목적비행기의 주요 용도는 환자수송, 여객수송, 정찰, 화재진압 등 4가지이다.

필리핀정부는 다목적비행기 가격이 동종의 외국산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한 대당 5백만페소(19만7천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제8차 본체분과 심의위원회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본체분과 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가 7월 25일(화) 통상산업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1일~14일까지 실시된 위성본체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및 1차년도 예산변경안에 대한 심의 등 2개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6개 부분체별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심의된 위성본체 연차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우수' 등급으로 최종 심의되었다.

또한 1차년도 예산변경안 심의는 해외공동개발기관과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국내 개발 일정의 변동이 불가피, 예산비목별 금액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일부 비목의 1차년도 개발예산을 2차년도부터 소요가 제기될 항목에 전용하여 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6개 부분체별 변경후 총사업비는 본체설계/개발 306억4백만원, 구조/열제어계 개발716억6천만원,

자세제어계 개발 1338억8천4백만원, 전력계 개발 111억2천8백만원, 추진계 개발 42억1천4백만원, 원격측정명령계 개발 110억7천8백만원 등이다.

한편 이날 심의된 2개 안건은 7월 27일(목)에 열린 동 개발사업 제11차 추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9차 본체분과 심의위원회는 8월 4일(금) 통상산업부에서 개최되어,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심의했다.

다목적 실용위성 제7차 시스템설계분과 심의위원회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시스템설계분과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가 7월 25일(화) 과학기술처에서 개최돼 시스템설계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였다.

1차년도 연차평가결과 심의는 시스템설계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KARI)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및 평가(7.11~7.12)를 바탕으로 '우수'한 것으로 최종 심의하였다.

또한 함께 심의된 2차년도(95.9.1~96.6.30) 시스템설계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당해년도 사업

비는 6,290백만원(총사업비 45,450백만원)이며, 개발내용은 동 개발사업 사업관리, 임무설계 및 요구사항 분석검토, 시스템 검증 계획 확정, 지상국 및 지상국 운영 S/W 요구사항 분석/설계 접속제어 문서작성, 품질인증 계획 및 과정 개발/적용, 발사 및 위성 초기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또 총괄주관기관(KARI)이 동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키 위한 '사업관리비'는 전체사업비의 0.05%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심의위원회는 당일 심의결과를 제11차 추진위원회(7.27)에 상정,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다목적 실용위성 제11차 추진위원회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7월 27일(목) 과학기술처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의제는 다목적 실용위성 제1차년도 연차평가결과, 동 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동 개발사업 제2차년도 사업계획서, 다목적 실용위성 지상국 수신시설 설치/운영 사업계획 등 의결안건과 다목적 실용위성 1차년도 사업에

산 변경 보고 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차기(12차) 회의는 동 개발사업 본체분과 2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의결키 위해 이달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9월 1일에는 정부와 총괄주관기관(KARI), 분야별 주관기관간의 총괄협약을 체결하게되며 2차년도 사업에 착수케된다.

공진청, 항공기용 표준부품 검사기준 고시

공업진흥청이 기압식 고도계(Altimeter, pressure actuated sensitive type)와 선회 및 경사 계기(Turn and slip instrument) 등 항공기용 표준부품 2개 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제정, 95년 7월 24일자로 고시했다.

공업진흥청 고시 제95-269호와 제270호로 각각 고시, 시행되는 동 검사기준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소재류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검사 합격기준'에 의거한 것이다.

항공기 수출협정 본격 추진

항공기 관련 제품 수출입시 필수조건이 되는 '수출협정' 체결을 위해 對정부 건의(안)을 준비중에 있다.

통산부 및 항우연(KARI)과 항공우주협회는 동 건의(안) 마련을 위해 작업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건교부 및 공진청과 항공우주협회 회원사 등 관련기관(업체)이 참여하는 '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협정 준비위원회(籌備委員會)'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협정」은 국가간 외교적 실무기술 행정 협정으로 미국의 경우 BAA(Bilateral Airworthiness Agreement)라고 하며, 항공기 관련 제품 수출시 수출국의 인증체계를 수입국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항공기 관련 제품 생산시 필수적인 인증절차를 수출국에서 수행케 함으로써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수출입 당사국 모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동 협정을 체결은 국내 항공기 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정책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 생산 및 국제공동개발 협상을 지

원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출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그 동안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동 건의(안)은 이달 중에 준비위원회 및 항공우주협회 정책위원회를 거쳐 통산부에 건의될 계획이며, 오는 9월초에 다시 재경원 및 외무부를 포함하는 '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우선 9월 중순경에 미국 정부에 수출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다.